남동발전, 불가리아 태양광발전 준공

2억달러 투입 발전규모 42MW ... 산업은행이 70% 프로젝트 파이낸싱

한국남동발전이 한국 최초로 동유럽에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 추진한 불가리아 태양광발전소가 준공됐다.

남동발전과 SDN은 3월8일 오전(현지시간) 불가리아 벨리코 타르노보 사모보단에 있는 42MW의 태양광발전소 현장에서 준공식을 열었다고 발표했다.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서 동쪽으로 200km 떨어져 있다.

프로젝트의 총사업비는 2억달러로, 남동발전과 SDN은 사업관리·경영과 기자재 공급·시공을 각각 맡았다.

사업비 70%는 한국산업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대출하고 나머지 30%는 남동발전과 SDN이 절반씩 투입했다.

남동발전과 SDN은 앞으로 20년간 발전소를 가동하면서 투자금액을 회수하고 이익을 배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3/09>